

# 교구별 법인 모아 불교사회 복지 확산

## 조계종 복지재단, 2012 신년 사업계획 발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올해 '종단 교구본사 복지법인 연합회'를 조직해 불교 사회복지 확산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재단은 교구본사 기반의 불교사회복지 성장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재단 조직 시스템 개편 통한 영역별 산하시설 집중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자비나눔 확산, 다문화가족 지원, 청소년 심성개발, 해외개발구호사업, 불교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종선 스님은 "25개 교구본사 중 복지법인이 설립된 11개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교구본사 법인 연합회를 구성해 종단 차원의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운영 중심축을 구성할 것"이라며 "교구본사 복지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속적 방문, 교류, 상담을 통해 교구본사 기반의 불교 사회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계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전담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 및 법인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재단은 조직 시스템을 >복지경영부 >복지지원부 >기획관리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으로 개편해 한 부서에서 운영하던 150여 산하시설을 영역별로 세분화해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종선 스님은 "분과별 집중관리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 개편 및 사회적 변화에 효

과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며 "사회적 동향 및 지역 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의 경쟁력 강화와 시설간 상호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최근 자살·왕따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도 고심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 재단은 '청소년 내 꿈 찾기의지나눔'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고,

### 복지 전담인력 부족 사찰 지원

### 150 산하시설 영역별 관리

### 청소년·다문화가족 돕기도 확대

2012년 주5일제 수업 전면 도입에 따른 토요일 체험활동 강화한다. 또한 재단 산하 시설과 연계해 청소년 심성개발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2월 21일 '청소년 학교폭력과 자살문제의 현황과 대안'을 주제로 포럼도 준비 중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도 확대 운영될 방침이다. 재단은 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규운영을 통해 다문화 가정 결혼후원과 다문화가족대축제를 실시, 사회·정서적 지원을 도모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자성과 쇄신 결사 중 '나눔 결사'에도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12년에도 '청소년 내 꿈 찾기의지나눔'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한다. 사진은 2009년 여주 신록사에서 진행된 의지나눔 캠프

자비나눔 확산 캠페인 '만행'을 활성화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3000여 철야정진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나눔결사를 해외로도 지속·확산 시켜 동국대의료원, 소방방재청 등과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재단은 이를 통해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의 조직을 전문화하고 긴급 재난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원봉사'를 통한 불제자로서의 자비행 실천도 중점 추진된다. 복지재단은 강원도 교구본사 중심의 불교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을 연계하고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파견할 계획이다.

불교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정신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자비명상, 마음챙김에 기반한 불교 수행법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 제시와 불교사회복지 발전 방향을 논하는 미래복지포럼과 불교사회복지포럼도 각각 연 2회씩 개최될 예정이다.

종선 스님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올해 조계종 핵심 과제인 '국민의 행복과 평화 실현'을 위한 사회적 공동선 실천에 주력하는 한편 다가오는 재단 창립 2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내적 역량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천태종 명락사, 다문화가정 웃놀이

### 대보를 맞아 내국인과 함께 하는 시간 마련

천태종 명락사(주지 김무원)가 다문화 가정과 내국인들의 화합을 위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대보름 맞이 웃놀이'를 2월 5일 실시했다.

명락사 교육회관에서 진행된 웃놀이에 참가한 다문화 가정들은 한국인들과 함께 고유 세시 풍속을 즐기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명락사와 다문화 가족 자립시설 명락빌리지, 천태종, 금강신문, 글로벌문화교류포럼이 합

계 마련했다. 명락사 관계자는 "글로벌 사찰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를 연중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립 시설인 명락빌리지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명락사는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제2대 중창 대종대조사가 낙점한 관악산 끝자락 도심에 위치한 사찰이다. 승속일체 주경야독의 정신으로 재가신도들이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스님들과 함께 수행하는 기도 도량으로 24시간 법당을 개방하고 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명락사에서 2월 5일 내국인과 다문화가족간에 진행된 웃놀이 풍경

## 자비나눔 실천하는 '진각복지'

### 사랑의 헌혈릴레이 올해도 개최 노인복지기금 마련 바자회 예정

진각복지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혜정 정사)은 설립 14주년을 맞아 '제2회 진각복지 사랑의 헌혈릴레이'를 2월 17일 진각복지센터 1층 물리치료실에서 개최한다.

헌혈문화확산을 위한 이번 행사에는 2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랑의 헌혈릴레이는 2011년 처음 실시

됐으며 당시 130장의 헌혈증을 모아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진각재가노인지원센터(센터장 나석원)는 3월 12-16일 진각중 주차장에서 노인복지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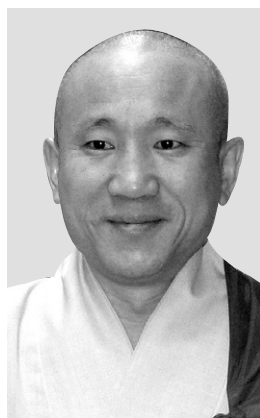
바자회에서는 백화점과 동대문종합쇼핑몰에서 기부 받은 다양한 브랜드 의류와 먹거리가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은행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함께 참여해 금융컨설팅도 무료로 진행한다. 바자회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02)911-1086 이나은 기자

## 아름다운동행, 올해 모금 목표액 100억원

### 2012년 주요사업계획 발표 정기후원자 1만명 모집 목표

불교계 최초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2012년 주요사업 및 목표'를 발표했다. 아름다운동행 총무원장 헤일 스님(사진)은 창립 4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보다 많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2월 10일 인사동 템플스테이 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아름다운동행은 올해 모금 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정하고, 정기 후원자 1만 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처님오신날 일주일 전부터 거리 모금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불자들에게 자비와 나눔 정신을 고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를 돌려 문화재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수학생 20여 명을 선발해 해외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 견학 추진을 준비 중이다. 문화재 견학에는 삼성그

룹이 2억 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아프리카 등 해외지역 지원에도 나선다. 아름다운동행은 지금까지 해외 지원을 유니세프 등 타 단체를 통해 지원해왔다.

이와 함께 기획 사업으로 저소득 가정 청소년 문화교육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선별해 한국에 있는

이와 더불어 지구 온난화 방지 등 환경보전사업도 실행할 예정이다. 모든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부처님의 자비가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름다운동행은 환경보전사업의 일환으로 종단 먼저 차량이용자제하기, 사무실 온도 낮추기, 환경 보호 연구단체 후원하기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저소득가정·다문화가정·미혼모·새터민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과 북한 어린이 돕기 지원 사업도 꾸준히 실행할 방침이다.

그리기 위해서는 종단내 도움은 물론 각 분야의 전담인력 확충과 기업들의 참여가 간절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헤일 스님은 "이러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후원자 모집이 절실하다. 부처님의 자비심과 원력에 의지해 추진해가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ARS후원 : 060-700-0011  
후원 문의 : 02-737-9595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 암환자를 위한 특별 메시지

# 천의선도

##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만천하에 공개 하면서



환자 몇분에게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복용시켰더니 3,4개월이 지나 몸이 편안하다 하기에 병원진찰을 받아보니 암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 않습니다. 소문에 따라 저를 찾아오는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데 한사람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립선,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일주일에 1번씩 4,5차례 기를 넣어 드렸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데 재발된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민중의술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의 초청을 받고 1998년 7월 초에 미국에서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병원에 가서 담당의사들의 병증제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환자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5일간 했는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온 환자가 오후에 공원 산책을 혼자서 하고 돌아왔다고 담당 의사가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감성을 지르며 천의선도 치료법을 전수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이 한국의 민중의술이 세계에 으뜸이라고 찬사를 하시며 감사패를 주셨고, 17일에는 콜럼버스 시장님이 명예시민장도 주셨습니다. 2011년 월드코리아에서 세계속의 한국인 자랑스런 민중의술 대체의학 부문 대상도 받았습시다 만은 제 나이가 82세, 나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이세상에 전무후무한 천하제일의 천의(天醫) 하늘이 준 의술을 물어두고 갈순없어 이 세상에 공개해서 한가정에 한사람씩 천하제일의 명이가 있다면 건강한 가정에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일반에 공개하면서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을 분 기다립니다. 나의 안내문에 의심이 나거든 강동구 천호2동 333-45 전화 02-568-4955 대가연 통증의원 원장 의학박사 심요택 박사님을 만나 보십시오. 심박사님은 암 환자를 대체의학의 자연요법을 체험해 보시고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감탄하시며 시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일반인이 자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는 분에게는 일체 전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책값 50만원에 필요하면 은용해기 35만원, 매선침 100개 내지 150개 구입하면 준비완료.

천하제일의 명이가 되는데 소요시간은 천의선도를 전수 받고 실습시간 육각수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환신 받는데 10분, 5시간이면 넉넉하고 암환자를 치료 하려면 육경신수련 60일에 하루씩 6회 참석 수련하시면 됩니다. (오방신장의 관습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을 원하거나 행복을 원하거나 천의선도를 전수받으십시오.

### 천의선도 태증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배래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봉빌딩 403호

연락전화 : 010 - 4933 - 4528